

가정용 PE랩, 크린랩 "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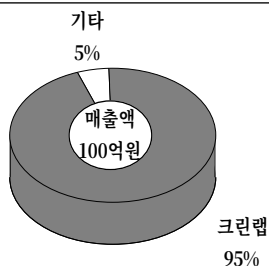
기술력 및 유해논쟁 바탕 ... 삼영화학 진출로 기술개발 경쟁기대

95년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에 따라 시장재편이 예상되었던 PE 가정용 랩시장이 예상과 달리 크린랩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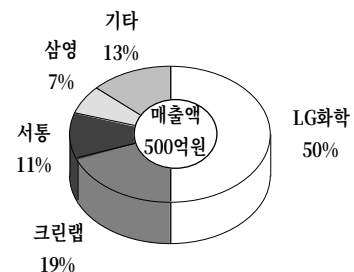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연간 매출액기준 100억원인 국내 PE 가정용 랩시장은 크린랩이 약 95%의 점유율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기타 군소기업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PE랩이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면서 대기업들의 신규진입에 따라 치열한 시장쟁탈전이 벌어지리라던 일반적인 관측을 뛰어넘은 결과여서 관심을 더해주고 있다.

가정용 PE랩 시장점유율(1995)



PVC·PE랩 시장점유율(1995)



95년 한해동안 제일제당을 비롯 LG화학, 삼성화성, 덕산유화가 PE 가정용 랩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크린랩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원인은 크린랩이 국내 최초로 PE 랩을 생산하여 기술면에서 타제품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PVC랩과 유·무해논쟁 이후 PE제품 특히, 크린랩으로 집중 전환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PE 가정용 랩시장에서 크린랩의 독주가 계속되는데 따른 역작용으로 94년 이후 연간 시장성장률은 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PE 가정용 랩시장이 이미 성숙기를 맞아 사용량이 정체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시장 상황에 따라 크린랩은 중국 상해에 현지 생산공장을 건설중인 것을 비롯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94년 30만달러에 그쳤던 수출이 95년 50만달러로 66.7% 신장하였으며, 캐나다는 OEM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국내시장은 삼영화학이 96년 1월하순 PE 가정용 랩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크린랩과의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와 기술개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PE 가정용 랩은 폭 20cm, 길이 50m 기준으로 연간 100만개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E·PVC랩 전체시장은 500억원대로 이중 LG화학 50%, 크린랩 19%, 서통 11%, 삼성화학 7%, 기타 13%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VC제품은 주로 영업용으로, PE제품은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